

# 현대 복식에서의 키치 유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효진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추미경

## 目 次

I. 서론	1) 과잉장식
II. 키치의 개념 및 배경	2) 부적합성
1. 키치의 개념	3) 모조품의 활용
2. 키치의 배경	4) 기능의 회색화
III. 예술과 키치	V. 결 론
IV. 복식에서의 키치	참고문헌
1. 키치패션의 발생배경	ABSTRACT
2. 키치패션의 유형	

##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현실에서 다양한 대중문화의 변화를 접하고 있으며, 그 변화속의 우리는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인공적인 이미지들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단조로움속에서의 우리는 '미적 대상'들을 더욱 주관적인 견지에서 가치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초현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순수한 현실 자체만이 문화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의 평가를 아름다움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저급하고 저속한 문화에 대한 미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적 감수성이라는 힘을 지니고 있는 미적 현실으로써의 'Kitsch'는

현대의 저속한 미적 대상과 자기 기만적이고 쾌락 주의적인 미적 태도에 대한 진단을 하게끔 표현되고 있다. 또 '저질화'라는 비난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중 사회의 산물로서의 키치는 가장 현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순수예술보다는 대중 문화적 요소가 강한 패션부분에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다양한 예술영역 속에 내재되어 있는 '키치'라는 객관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현대 대중문화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재조명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또 키치 패션의 발생 배경과 키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하위문화에 존재하는 복식의 또 다른 조형미를 인식하고 복식이 한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산물임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으로써 먼저 키치에 대한 철학 관련 서적과 학술논

문 그리고 미술 비평지를 통하여 키치에 대한 개념 및 배경 그리고 예술과 키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복식에 나타난 키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작품집과 각종 패션 잡지의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키치의 개념

키치는 독일어로 저속한 작품, 시시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쁜 예술, 즉 예술 쓰레기 혹은 문학 쓰레기<sup>1)</sup>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위적인 예술, 모조품, 거짓말, 위조와 같은 허위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다.

키치의 용어는 대략적으로 19세기 말에 생겨나서 1910년에는 국제적인 용어로 등장<sup>2)</sup>하였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다.

그 첫번째로는 영어의 'Sketch'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1860년대부터 1879년대 사이에 독일 뮌헨의 화가들이 값이 싸고 하찮으며, 폭넓은 취미와 함께 널리 팔릴 수 있는 예술품들 중에서 그림을 키치라고 지칭함으로써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뮌헨을 찾은 영국계 미국인들이 사갔던 그림들을 '스케치'라고 불렀고 이것이 독일어식 발음으로 변형이 되면서 '키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스케치설'이다. 즉, 성실성이 결여된 작품들과 부르조아의 동경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품들로 눈덮인 산의 정상을 그린 그림이거나 양치기들과의 조화된 그림 또는 60, 70년대의 우리나라 이발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사품의 그림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메클렌부르크 방언에서 '값싸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verkitschen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sup>3)</sup>는 설이다. 키치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verkitschen이라는 말은 '다르게 속인 물건을 강매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했던 바에 의하면 '진품이 아닌 것'이라는 가치 평가적 의미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얼룩' 혹은 '진흙을 가지고 놀기'라는 독일어에서 왔다는 설<sup>4)</sup>이다. 여기서 진흙이라는 의미는 더럽다는 것으로 이는 키치의 부도덕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정서가 희미하게 되며 탈선적이고 퇴폐적인 하위 문화의 한 부분을 반영하는 키치적인 면이 내포된 것으로 패션에서는 영성만 걸침으로써 가슴을 노출시키거나, 힘을 강조하는 등 여성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여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루드비히 기츠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모으다(den Strassenschlamm Zusammenscharre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 동사 kitschen에 키치를 연결시켰으며, 독일 남서부 지방에 널리 사용된 kitschen은 '낡은 것으로 새가구를 만들다(neuo Möbel aufalt Zurichten)',<sup>5)</sup>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은 소재를 의도적으로 중고스타일의 느낌이 나도록 만드는 kitsch의 특징으로써 길게 밖으로 늘어진 구멍있는 셔츠나, 바랜듯한 진(Jean)의 낡은 느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키치가 '미적 부적절성(aesthetic inadequacy)'의 개념을 함축한다고 한 칼리니스쿠(M. Calinescu)<sup>6)</sup>는 키치의 범위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는데, 첫번째로는 형식적인 특질인 재료,

1) 손일호, "키치적 특성으로 본 복식", 포항선린전문대 논문집, 1994. 3. p.169.

2) Ibid.

3) 이병애, "독일문학작품에 나타난 키치에 대한 연구", 「독일문학」 1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973. p.78.

4) Robert C. Solomon, "Oh Kitsch and sentimentality", JAAC, 1991, 겨울호, 김영미역, 「공간」, 292호(1992. 1월호), p.127.

5) 김소연, "키치연구 : 사회문화론적 접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25.

6) Calinescu Matei,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3인 역(서울 : 시각과 언어, 1993) pp.292~295.

형태, 크기 등이 문화적 내용과 관련해서 부적합한 단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개별적으로 보면 키치적이지 않지만 그 결합이나 배합에 의해 키치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번째는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에 미적 의의를 부여하여 진정한 예술대상에 돌려야 할 모든 찬사를 받는 경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원의외에도 많은 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키치에는 '진품이 아님', '윤리적으로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키치는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값이 비교적 싸야 한다는 것이나 쓰레기 폐물로 여길 정도로 저속한 취미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완성 된다는 것 등 언어만큼이나 자유스럽고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키치의 용어를 '모조품'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뒤에 기능주의적인 모던 디자인의 경향을 '굿(good)'이라고 한다면, 키치는 '배드(bad)'를 의미한다고 하는 디자인 평가의 대립된 개념이 생긴다<sup>7)</sup>라고 보았다.

그리고 패션에서의 키치의 이미지는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 산만한 장식, 싸구려 소재들의 사용으로 현대의 물질 문명의 나태함을 대변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혁신적인 자기 표현의 양식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닌 키치는 통속적으로 저속하고 나쁜 취향의 하찮은 사물과 이미지를 총칭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의 한 범주로서 산업화된 현대 소비사회에 어떠한 댓가도 없이 즉각적인 쾌락과 보편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고 대중들의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키치의 배경

서양사에서 19세기는 근대 사회가 발전된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기풍이 다져진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절대주의 붕괴로 인하여 중산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민문화가 형성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사회적으로는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 시대로 변화되고 여성들의 교육이나 사회 진출의 기회도 균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기술의 현저한 발달과 실용성이 두드러지면서 새롭게 눈을 뜬 대중들의 욕구나 양식이 넓은 의미의 예술적 영역인 그림, 음악, 건축, 가구 등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신속한 재생산과 광범위한 보급의 수단으로써 '키치'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sup>8)</sup>는 키치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키치적 사물과 이에 대한 태도의 발생을 '서구 자본주의 시민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한 사회가 풍요롭게 될 때 욕구보다는 그러한 '욕구' 자체를 만족시킬 수단이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오브제의 과잉적 장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이러한 상황은 하류층 사람들 자신들의 사고와 규범을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 시키려는 태도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이에 키치는 대중문화에 근접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한자리를 매우게 되었다.

또한 19세기의 예술 양식이 혼탁해지자 기본적인 틀위에 일정한 장식이 덮이게 되었는데, 현대 문화 사회학자인 맥도널드(Dwight McDonald)는 '19세기 이후에 키치가 성장하게 된 주요 이유중의 하나를 대중 문화속에서의 새로운 시장확보나 기술진전으로써 그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렴

7) 「디자인 공예 대사전」, (서울: 미술공론사), 1990. p.710.

8) Abraham Moles, 「키치란 무엇인가」, 열광현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p.11.

9)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59.

한 가격대 형성과 키치 예술가들이 '평범한 원칙'으로 대중들에게 즐거운 인상과 만족을 주고자 한 것이 적중했다<sup>9)</sup>라고 하였다.

또한 키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문화속에 근거한 소비사회이기 때문이며 대중 소비사회란 3차원의 기계복제<sup>10)</sup>를 넘어서는 이미지 복제, 상상력 복제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키치는 대중의 소비적 욕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키치는 19세기 산업혁명이후에 뒤따른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기계문명의 발달과 대량 생산으로 인하여 상류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고급 예술이 대중화가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미적 감수성 개발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하류층이 그러한 소외감으로 부터의 해방감이 키치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 III. 예술과 키치

키치는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써 규정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범주로서의 키치는 예술과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학적 측면과 미술적 측면 그리고 광고적 측면에서 키치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키치는 예술과 서로가 뗄 수 없는 공생공존의 관계속에서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예술은 긍정적인 가치를 담보로 하는 미적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즉 키치는 예술의 대립물로서 예술적 무가치적인 사이비예술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키치와 예술은 성격상 서로를 이용하지만, 역전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던 필립 크릭(Philip Crick)<sup>11)</sup>은 키치와 예술을 구분하는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예술이 자연발생적이며 조작하지 않는 것'이라면 키치는 방종이나 탐닉의 결과로써 하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예술에 있어서 구조와 장식이 상호의존적 관계이라면, 키치는 단순한 공존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자기 지시적이며 새로운 창조의 산물이라면 키치는 이중적 부정으로 예술작품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잘못을 범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키치가 더욱 더 강제적이며 대중의 감상적 선택에 의해 마련된 기준이 모든 예술의 고상함과 저속함을 구분시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키치를 현대 문화의 산물로 주시한 몰르(Abraham Moles)<sup>12)</sup>에 따르면, '키치란 구체적인 사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양식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운데 사물과 관계하며 보여주는 객관화된 형태일 뿐 이다'라고 키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대 예술의 흐름속에서 키치는 현대 사회의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문학작품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최미숙<sup>13)</sup>은 '키치는 고급문학의 모조품을 만들어 대중이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대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만족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대중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문학과 키치문학은 구별이 확연해질 수 있는데 '즐거움'을 준다는 점은 같지만 일부 독자들은 문학에 투자할 시간이 짧으므로 빨리 익히거나 이해하는 데 학구적인 탐구가 필요없는 책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최대한 빨리 근접할 수 있는 '편안함'은 키치문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의식의 변

10) 김현도, "우리 미술과 키치", 「문화예술」, 1992, pp.18~21.

11) 김소연, op.cit., p.15.

12) Abraham Moles, op.cit., p.302.

13) 최미숙, "키치와 문화교육", 「서울사대 선청어문」, 1995, pp.155~156.

화 중 '유일성의 아우라(Aura)<sup>14)</sup>가 상실되고 모방화되고 단순화되어 쉽게 복제하는 것'도 키치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조광석<sup>15)</sup>은 미술작품에서 '유일성의 아우라는 꼭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닌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중요성도 작가가 직접 제작한 유일품에서가 아니라 작가의 아이디어의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키치화된 미술 작품이 화려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작가의 의도를 예술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중적 가치를 높게 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에서도 키치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된 사물들중 재평가하기에 쉬운 것만을 선택하게 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민수<sup>16)</sup>는 '어떤 부류의 이미지들은 예술적 창조성과 진부함 사이에서 대단히 유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러한 부류의 광고 이미지가 '키치'라는 용어로부터 유래하는 미적 체계이자 비평적 분석이 가해져야 할 이미지의 영역이지만 키치광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앞으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할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미적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즉 키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광고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진부한 이미지가 파생하는지를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풍부한 일상 삶의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소비자 자신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자인 달리(Salvador Dali)<sup>17)</sup>의 기법도 현재는 누구나 다 사용하는 테크닉이며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한 기법으로 그려진 정물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량 복제가능성이 순수예술의 가치구조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예술과 키치는 필연적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예술은 모든 사람들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고 있지만, 키치는 가장 넓은 계층에 뿌리를 두면서 예술의 품위를 격하시킨 동시에 우리 모두의 삶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IV. 복식에서의 키치

### 1. 키치패션의 발생 배경

20세기말 복식의 특징중 하나는 과거처럼 하나의 예술양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V, 영화, 잡지, 연극, 음악 등의 매체물에 의해 유행의 보급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예술양식이 나타났으며, 이에 금성장한 기성복 산업은 젊은이의 취향에 맞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유행패턴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즉 대중성을 배경으로 한 키치는 현대 소비자사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은 주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우리의 복식은 일정한 형태나 종래의 미적규범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것이나 무시되었던 미적 규범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주관적인 미에 더욱 중점을 두게

14) 아우라(souffle)는 공기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어떤 실체의 주위를 싸고 있는 분위기로써 조형예술에서 는 신비롭게 보여지는 현상들로 해석된다.

15) 조광석, "미술작품에서 유일성의 Aura와 Kitsch", 「미술평단, 1995. 3」, p.22.

16) 김민수, "미치광고의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 「월간 디자인」, 1996. 6, p.168~171.

17) Abraham Moles, op.cit., p.290.

되었다.

따라서 현대 복식에서의 키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90년대 전반기까지의 패션 부분을 토대로 복식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는 젊은이의 시기로 자신들의 특유한 청소년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특히 팝 아트(Pop art)와 펑크(punk)<sup>18)</sup>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기묘한 옷차림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매리 퀴트(Mary Quant)<sup>19)</sup>에 의해 등장한 미니스커트와 성별의 구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unisex)<sup>20)·21)</sup> 모드는 당시의 영 패션(young fashion)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과거 복식디자인에서 중시하였던 균형미에 대한 반항이자 도전이며, 좀 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팝 아트는 주제와 기법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예술로써 부정적인 의도가 아닌 낙관적인 의미로 사진, 영화, 만화, 포스터, 상표 등의 평범한 것에서 대중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패션에서는 기존의 오브제나 진(Jean)등을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패션 경향은 키치패션의 통속적이며 유희적인 모조품을 활용하는데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의 '키치의 심리학'에서 설정된 다섯번째 유형인 '사물이 일상적이고 관습적 장소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차원적인 상황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완수하게 하는 초현실주의적 유형'<sup>22)</sup>의 특색을 내포하고 있는 키치의 미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패션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 발전이 계속되었으며, 미래학에 대한 관심은 복식을 미래지향적 패션<sup>23)</sup>으로 유행되게 하였다.

70년대 말경에는 비현실적이며, 기괴한 형태를 나타내는 펑크 아트(Punk art)의 도입으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형태와 의복을 걸쳐입는 형식의 레이어드룩(Layered look)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과거의 착장법을 무시한 히피(Hippies)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연 찬미파의 젊은이로서 기성세대의 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에의 귀의를 주장하였다. 특징적인 스타일은 긴 길이의 베스트 가장자리에 술장식이나 자수를 놓고 장발에 누더기같은 느낌의 의복을 걸쳐 입거나 꽃장식이나 쇠사슬, 벨트 등으로 장식적 요소를 더해갔다.

결국 국기를 이용한 의복이나 계절에 적합하지 않는 의복,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 등은 물질문명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심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더기옷 같은 느낌의 '증고스타일'<sup>24)</sup>은 저속한 취향과 착장법을 무시한 키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에너지 파동등으로 원자재가 폭등함으로써 패션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이르기 까지 절대적 영향을 끼쳤으며 소비재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도 '양적우선에서 질적 우선'<sup>25)</sup>으로 구체화되었다.

디자인에서는 뉴웨이브(New Wave)<sup>26)</sup>의 물결로 대중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거나 원칙이 무시된 스타일을 받아들였고 남과 다른 차림의 개성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서 입을 방식마

18) Elizabeth Ewing,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Batsford Book, 1986, pp.240~241.

19)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The Twentieth Century, Batsford Book, 1986, p.115.

20) Richard Bond, The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London Road, 1981, p.197.

21) 백영자,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91, p.456.

22) Abraham Moles, op.cit., p.42.

23) 백영자, op.cit., p.443.

24)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46~8.

25)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 : 형설출판사), 1989, p.385.

26) 백영자, op.cit., p.445.

저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받아들인 디자인 이미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sup>27)</sup>이었다.

복식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전위적인 현대 감각에 과거의 모드(mode)를 융합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내면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강렬한 원색과 저가품인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이용하여 복식과 불협화적인 효과를 내는 키치의 속성이 나타나 있으며 기계문명을 상징하는 공업용구와 생활 용구가 장식적 요소로 두드러졌다.

1990년대의 전반기는 환경 위기문제로 인해 문명에 대한 인간 회의와 비판의 사고가 반영된 에콜로지(Ecology) 경향과 옷의 형태상 구조나 소재 그리고 균형에서 착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파괴화 되는 해체적 양상<sup>28)</sup>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미적 범주에 대한 흔들림은 상황에 맞는 의복구분이나 계절변화에 따른 의복 차별화 등 조화로운 미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어 이질적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와 색상이 조화가 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팝아트 룩(Pop-art Look), 히피 룩(Hippies Look), 펑크 룩(Punks Look), 그런지 룩(Grunge Look) 등으로 이어진 패션 경향'<sup>29)</sup>은 현대 패션에 키치적 요소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정적이며 저속한 패션이 새로운 미의 개념으로 부상된 것은 사회의 무료함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이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패션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2. 키치패션의 유형

19세기의 부르조아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키치는 대중 소비문화를 맞이하면서 더욱 감상적이며 저속한 요소로 성장하였다. 또한 타예술 분야인 회화, 건축, 조각, 사진, 광고 등의 시각적

조형물에서는 더욱 일시적이거나 자극적인 면을 보여주었고 위조된 거짓 감각적인 면으로 문화의 가치를 낮추었다.

특히 한 시대를 반영해 주는 복식에서의 키치의 의미는 '나쁜 취향'이나 '저속함' '풍부함' 등의 의미로써 지배적인 대중성에 힘입어 키치 패션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치패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과도한 장식적 이미지를 지닌 '과잉적 장식 유형'과 적합하지 않은 재료나 형태를 사용하여 의복 착장상의 오류 등을 범하는 '부적합성 유형', 또한 낡고 일상적이며 유치한 오브제 등을 사용하는 유형인 '모조품을 활용하는 유형'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노출과 종교적인 낡은 느낌 등을 주는 '기능을 회색시키는 유형'을 살펴 보았다.

### 1) 과잉장식

이 유형은 19세기 초 발생한 부르조화 문화를 대변했던 특징 중의 하나로 일종의 수집벽이라고 할 만큼 증가한 물적 사물을 복식에 끌어들이려 장식하려는 충동으로써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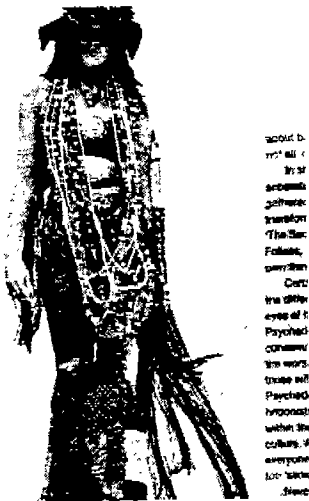
이러한 과잉장식은 20세기에 들어와 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대량 소비사회에서 보다 단순함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잠재의식속에 억제되었던 욕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키치적 특성과 결합하여 과도한 장식과 이미지를 반영시켰던 것이다.

(그림 1-1)은 히피스타일로써 다양한 텍스타일의 조각들을 패치워크(patchwork) 기법으로 연결하고 무수히 많은 목걸이들을 목에 매어 산만한 느낌을 더해준다. 이러한 과잉장식은 저속하고 단정치 못하며 싸구려같은 키치의 미적요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7) Ibid.

28) 박연주, "매니쉬룩(manish look)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32.

29) 김혜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p.41~3.



(그림 1-1) Dolce & Gabbana's  
Fashion News, Vol.12, '92 S/S

또한 (그림 1-2)는 강렬한 색채와 피부와의 대조는 더욱 강한 느낌을 주며 복식 전체에 덧붙인 여러가지 형태의 클립과 핀 사용은 '단순함을 거부'<sup>30)</sup> 한다는 키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부가적인 장식에 대한 두질서하고 현란한 느낌은 품위를 격하시키고 있다.



(그림 1-2) Thierry Mugler  
Fashion News, Vol.14, '92 S/S

(그림 1-3)은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s)에 해당하는 의복으로 불규칙적으로 과도한 핀 장식과 만화그림 그리고 영문자의 사용은 조잡한 느낌을 주며 디자인에서의 통일감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과잉적 장식  
Street style, p.66

특히 (그림 1-4)는 아프리카즘 영향을 받은 자메이카 뮤지션의 스트리트 스타일로 억제되었던 욕구를 분출하듯 뿌리 모양의 과도한 머리 장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4) 과도한 머리장식  
Street style, p.130

30) Abraham Moles, op.cit., p.26.



이처럼 싸구려 액세서리를 무더기로 달거나,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고 무질서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반항심리로 볼 수 있다.

2) 부적합성

이 유형은 평범한 아이템일지라도 의도적으로 불협화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이질감나는 요소 등으로 부적합한 효과를 내는 kitsch 미적 특성을 내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재료나 형태, 크기등의 전형적인 특질이 부적합한 단일 대상들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의 오류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그림 2-1)은 과거의 착장법에 위배되는 디자인으로 걸옷인 블라우스에 속옷을 착용함으로써 속옷이 걸옷화되는 일반적인 착의법에 적합치 못하는 이탈은 정상적인 미적 규범이 아닌 kitsch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1) Xuly Bet  
Fashion News, Vol.1.24, '95 S/S

또한 (그림 2-2)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원리중 균형과 비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머리에 쓰고 있는 인조모피의 모자

는 의복과의 무게에서 균형감을 깨어 미의 규범상 적합하지 못한 kitsch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John Galliano  
Fashion News, Vol.12, '92 S/S



(그림 2-3) Vivienne Westwood  
Fashion News, Vol.14, '92 S/S

(그림 2-3)은 이질감 나는 소재와의 결합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디자인으로 속옷스타일의 상의와 하의를 금속성있는 장식으로 걸옷화하여 인조모피의 모자와의 결합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서로 관계없는 아이템인 속옷과 금속장식, 인조모

피, 장갑 등으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스커트를 아래로 내려 뜨렸거나, 터프한 가죽과 러플을 조화시켰거나, 의도적으로 시접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유아스런 티셔츠에 험렁한 바지를 조화시켜 입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모조품의 활용

이 유형은 '저속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산만한 장식에 의한 효과도 있지만 다양한 소재 즉 싸구려이면서 유치하고 쉽게 소모될 수 있는 모양의 플라스틱, 비닐, 쇠붙이 등의 위조품과 낡은 골동품 그리고 일상적인 오브제의 소재가 키치의 요소로 활용된다.

(그림 3-1)은 상의에 스펀지같은 소재로 부가적인 장식을 하거나 쇠붙이의 느낌이 나는 오브제를 모자나 의복에 부착하여 빛이 반사되는 하의 소재와의 결합으로 부피감은 있지만 실속없는 느낌을 주는 키치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Yohji Yamamoto  
Fashion News, Vol.9, '92-'92 F/W

특히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더욱 모조품임을 보여준 (그림 3-2)는 장 폴 굴티에(Jean-Paul Gaultier) 작품으로 모자를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모조꽃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전혀 다른 칼라로 염색된 머리 또한 가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 Jean-Paul Gaultier  
Fashion News, Vol.12, '92 S/S

(그림 3-3)은 다양한 칼라와 불규칙적인 문자 장식을 한 싸구려 느낌의 비닐 소재를 이용하여 가슴과 배 부위를 가리는 저속한 스타일이다. 이러한 이미지도 키치의 성격인 '기만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Courreges  
Fashion News, Vol.24, '95 S/S

이외에도 가짜 속눈썹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변형된 텍스타일 등을 볼 수 있다.

4) 기능의 회색화

이 유형은 키치적 대상물이 상호간에 아무 관계도 없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의복에 여러가지 불필요한 키치적 오브제의 결합이나, 종교적 이미지를 내포함으로써 본래의 의복기능을 회색시키는 것이다. 즉 어떠한 물건에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러운 장식이 있다면 그 장식에 의해 의복 본래의 기능에 방해가 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은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입어서 찢기고 울이 떨어진 듯하게 만든 드는 진(jean)의 표현과 길게 늘어진 재킷은 크기 자체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의복 본래의 기능과 미적 원리에 어긋나는 스타일이다.



(그림 4-1) Vivienne Westwood  
Fashion News, Vol.9, '91 F/W

그리고 의복의 기능상 불필요한 소재를 이용한 (그림 4-2)는 주방기구인 강판과 국자 등을 의복에 부착함으로써 의복 본래의 기능을 회색시키는 키치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복식과 복

식에 쓰여지는 도구로 실제 생활과 내면세계를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특성도 내포되어 있다.



(그림 4-2) Jean-Paul Gaultier  
Street style, p.125



(그림 4-3) Ozbek  
Fashion News, Vol.24, '95 S/S

즉 키치는 소비상품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현실을 다룬것에 비해 초현실주의는 공간에는 꿈을 현실에는 신화를 대립시켜 욕망과 현실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림 4-3)은 어깨의 패드 자체를 걸어로 노출

시키고 힙(hip)선이 드러나 보이는 디자인으로 벨트를 힙선에 함으로써 벨트는 꼭 허리선에 한다는 고정관념은 탈피하였지만 의복의 구성상 미완성된 듯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이다.

이외에도 복식에서는 소재를 의도적으로 오그라들게 하거나 찢고, 울을 풀고, 구멍을 뚫거나, 해지게 함으로써 의복의 본래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형태도 포함된다.

## V. 결 론

현대의 '산업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지 문화를 창출하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새로운 미적 체험과 가치관을 구축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소비사회에 사는 각 개인의 가치관을 일부 통속적이고 과장된 체계로 변화시켰고, 결국 부르조아 사회의 부흥기에 출현한 '키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반영하는 복식이 키치적 유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복식에서의 키치적 유형이 나오기까지 하나의 모티브(motive)가 된 패션상의 배경을 60년대에서 90년대 전반부까지 살펴보았는데, 60년대는 팝 아트의 등장과 더불어 젊은이의 시대로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의복에 대한 과거 착장법이나 균형미에 대한 반발심이 구체화되었다.

70년대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히피족의 등장과 함께 의복의 착장법이 무시되며 중고스타일이 나타나는 등 키치적 요소가 잘 나타났다.

80년대는 인간성 회복을 주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거나 원칙이 무시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90년대의 전반기는 예술 전반을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환경문제에 의한 에콜로지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의복 착장상의 파괴를 주장하는 해체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팝아트 룩, 히피 룩, 핑크 룩, 그런지 룩 등의 패션경향을 걸치면서 복식에서도 키치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복식에서의 키치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과잉적 장식 유형으로 자극적인 칼라와 산만한 장식 등이 표현된 것으로 19세기초 발생한 부르조아 시민 문화의 부흥기를 대변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과도한 장식이 키치적 유형으로 강렬한 칼라의 조각난 텍스타일의 패치워크나, 과중한 양의 목걸이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적합성의 유형으로써 과거의 착장 순서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재로나 크기, 형태 등이 적합하지 않는 대상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질감 나는 소재의 조화로 디자인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으로 가죽과 러플을 조화시키는 예나, 속옷이 겉옷화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모조품이 활용된 유형으로 저속하고 싸구려 재료인 값싼 비닐이나 플라스틱 소재, 골동품 등을 이용하여 가죽이나 진품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거나 악어가죽 무늬를 프린트한 비닐 또는 모조 꽃을 활용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능을 회색 시키는 유형으로는 의복과는 무관한 과도한 장식으로 의복 본래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울이 풀리고 찢은 듯한 느낌의 중고스타일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불필요한 장애품을 부착하는 등 의복 본래의 기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형인 것이다.

이처럼 복식에서의 키치는 과거 미적관념에 대한 반발과 신선한 활력소의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한정된 디자이너의 작품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으로 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문학, 회화, 건축, 광고, 복식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되어진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본 결과 키치는 이 시대의 문화와 미적 감수성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무한한 디자인 개발과 미적 범주의 가능성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속 연구로써는 이제까지 제한되었던 요즈음에 유행되고 있는 대중가수의 패션과 키치적인 가사 흐름 등을 연결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민수(1996), "키치 광고의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 「디자인」
2. 김소연(1994), "키치연구: 사회문화론적 접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김원갑(1992), "키치문화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건축", 「예술세계」
4. 김현도(1992), "우리미술과 키치", 「문화예술」
5. 김혜정(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 박연주(1995), "매니쉬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8. 백영자(1991), 「서양 복식문화사」, 경춘사
9. 손일호(1994), "키치적 특성으로 본 복식", 포항선린전문대 논문집
10. 서성록(1993), "키치와 진지한 예술", 「문화예술」
11. 안선경(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2. 이병애(1973), "독일문학 작품에 나타난 키치에 대한 연구", 독일문학, 1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3. 이정옥(1989),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4. 정진국(1990), "사진 이미지와 키치의 그늘", 「예술과 비평」
15. 조광석(1995), "미술 작품에서 유일성의 Aura 와 Kitsch", 「미술평단」
16. 최미숙(1995), "키치와 문학교육", 서울사대선정어문
17. Abraham Moles,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역, 시각과 언어, 1995
18. Calinescu Matei,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3인역, 시각과 언어, 1993.
19. Elizabeth Ewing,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Batsford Book, 1985.
20.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The Twentieth Century, Batsford Book, 1986.
21. Richard Bond, The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London Road, 1981.
22. Robert C, Solomon, "Oh Kitsch and sentimentality", JAAC, 겨울호, 김영미 역, 공간, 192호, 1991
23.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 Hudson, 1988.
24. Fashion News, Vol.9, '91 F/W.
25. Fashion News, Vol.12, '92 S/S.
26. Fashion News, Vol.14, '92 S/S.
27. Fashion News, Vol.24, '95 S/S.

### ABSTRACT

#### A Study on the Kinds of Kitsch in the Modern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Kitsch in the modern society, and to analyze the modern fashion design adapting Kitsch's materiality.

Thus, this study explains the concepts and background of Kitsch and examines its aesthetic valu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Kitsch and plastic art.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histori-

cal documents, the meaning of the Kitsch is explored from various angle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Kitsch began in the period of the 19th century when was society began to form and society grew to be rich. That is to say, Kitsch is the result of intrusion of capitalist modernity in the domain of the aesthetic modernity.

The concept meant ethical something bad, counterfeit, and bad taste.

The materialities of Kitsch are over-decoration, unfitness, the use of imitation, malfunction, used fashion design.

1. Over-decoration is due to the material abundance through various accessories, many colors, etc.

2. Unfitness is obtained by the error of arrangement, which means the wrong cohesion of form, size, or material.

3. The use of imitation makes use of cheap materials, such as vinyl, imitation leather, imitation fur, etc.

4. Malfunction comes from losing the original function, by the addition of un-neccessary functions.